



메테오라(MET)

주요내용설명서(국문백서)

Korean White Paper

2025년 11월 18일

Disclaimer

본 번역본은 2025년 11월 18일 기준의 메테오라(Meteora) 토큰 유틸리티 페이퍼의 관련 내용 위주로 번역되었습니다.

빗썸은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의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번역본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문의 내용이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거나 원문 작성 측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번역본은 오픈 커뮤니티의 검토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메테오라(Meteora)는 솔라나 기반의 유동성 인프라 스택¹입니다(동적 유동성 마켓 메이커(DLMM)², 동적 자동화 마켓 메이커(DAMM)³ v1/v2, 동적 본딩 커브⁴, 토큰 락업⁵ 프로그램, 출시 도구 등). 암호학적으로 안전하고 대체 가능한 메테오라의 토큰(티커: MET)은 인프라 스택 내에서 상호 운용 가능한 유틸리티 토큰으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메테오라의 가치 확보에 관여하는 프로젝트 팀 혹은 지분 보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잉여 수수료(존재하는 경우)를 적극적인 사용자 및 커뮤니티 구성원에 분배하여 참여를 유도하게 되며, 이는 생태계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MET는 초기 유동성 촉진, 사용자 인센티브 조정, 파트너사 출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만 토큰 생성 이벤트⁶ 시점 기준으로는 스테이킹⁷, 거버넌스, 프로토콜 수수료 공유 등의 기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기 유틸리티는 특정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과 우선 이용 권리를 중심으로 하며, 토큰 출시 이후 추가적인 기능(MET 스테이킹 관련 기능/포인트 등)은 향후 의사 결정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¹ Stack

² Dynamic liquidity market maker

³ Dynamic automated market maker

⁴ Dynamic bonding curve

⁵ Lockup

⁶ Token generation event (TGE)

⁷ Staking

비즈니스 모델

핵심 제품

- 동적 유동성 마켓 메이커

동적 유동성 마켓 메이커를 기반으로 유동성 공급자는 동적 수수료를 통해 변동성을 이용하고, 실시간으로 유동성을 특정 범위에 집중시키며, 선호하는 변동성 전략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적 자동화 마켓 메이커 v2

동적 자동화 마켓 메이커 v2는 상수 곱⁸ 자동화 마켓 메이커 모델로서 트랜잭션⁹ 수수료 최적화 및 선택적 집중 유동성, NFT 포지션 등을 이용한 유연한 유동성 공급이 특징입니다. 다만 v2는 신규 제품이며, 동적 자동화 마켓 메이커 v1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적 자동화 마켓 메이커 v1

동적 자동화 마켓 메이커 v1은 상수 곱 자동화 마켓 메이커 모델로서 0부터 무한대까지의 토큰 가격 범위를 지원합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대출 서비스와 기존의 스왑¹⁰ 수수료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음으로써 수익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

- 동적 본딩 커브

동적 본딩 커브는 자유롭게 맞춤 설정 가능한 가격 책정 곡선 모델로서 자체 설정한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토큰을 생성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토큰은 가상의 본딩 커브에서 거래되다가 최소 기준치에 도달하게 되면 동적 자동화 마켓 메이커 v1 혹은 v2 풀로 편입되게 됩니다.

MET는 메테오라 생태계에서 무엇보다도 협력 유도 및 접근 권한 부여를 위한 핵심 자산입니다. MET는 메테오라의 유동성 및 출시 인프라에 대한 참여를 상징하는 자체 브랜드 토큰으로서 기능합니다. 사용자는 MET를 보유 및 활용하여 메테오라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유동성 및 토큰 출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⁸ Constant product

⁹ Transaction

¹⁰ Swap

토큰 설계상 주요 유틸리티 중 하나는 MET 스테이킹을 통한 포인트 획득으로, 포인트는 사용자의 참여도와 접근 권한을 상징하는 양도 불가능한 기록과도 같습니다. 참여자는 포인트를 활용하여 메테오라의 기술을 활용해 출시되는 토큰을 일정 비율 할당받거나 토큰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큰 유틸리티를 바탕으로, 프로토콜 수수료에 대한 권리나 거버넌스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MET 스테이킹으로 접근 권한 및 참여 측면에서 확실한 혜택이 제공되는 통합 모델이 형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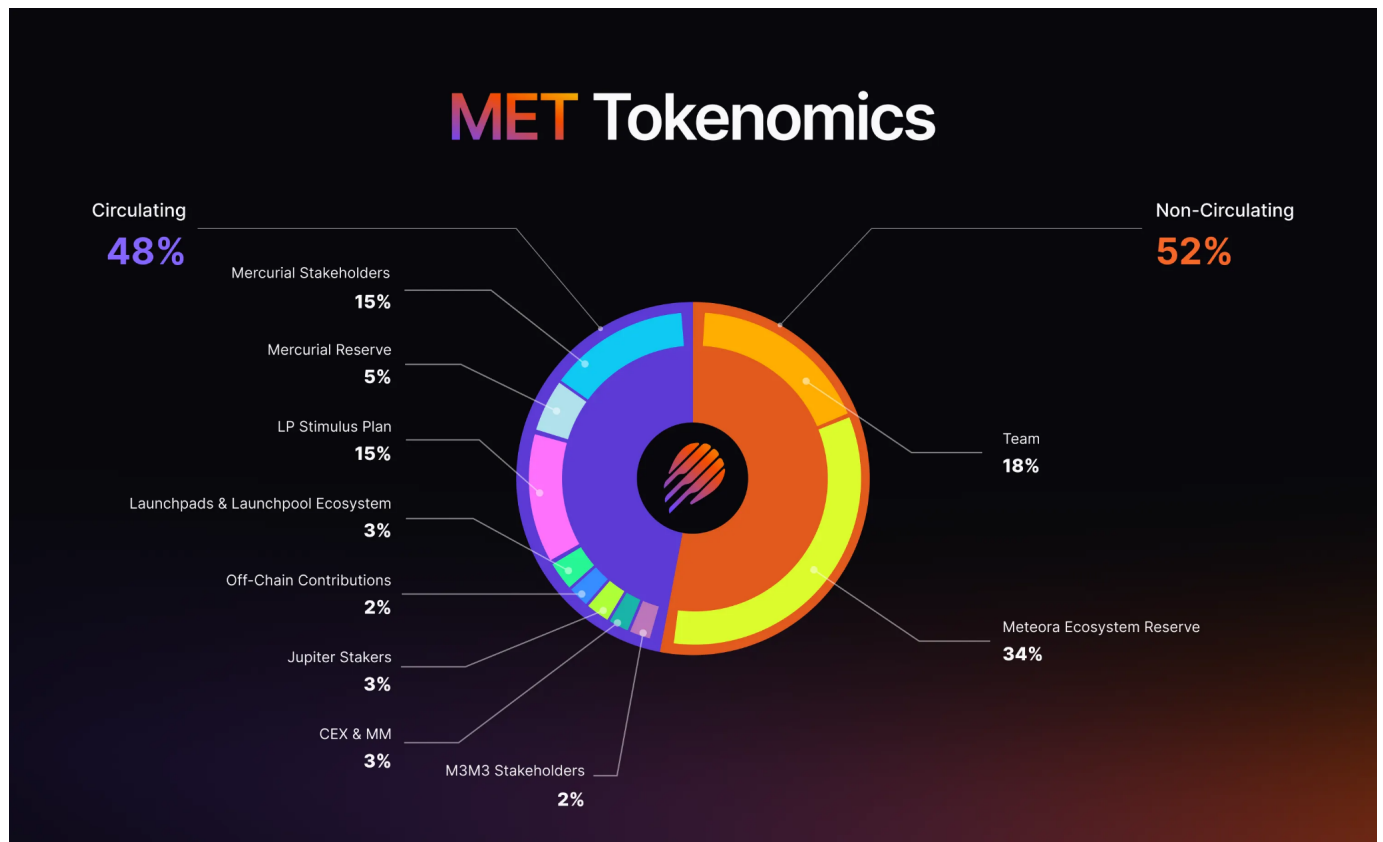
MET는 점진적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생태계 내 역할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의 경우 추가 기능 이용 권한, 할인, 유동성 프로그램 보상 가중치 등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향후 의사 결정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언급된 사례들에는 고려 중인 MET 유틸리티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MET는 메테오라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MET가 없다면 사용자가 리소스를 사용하여 활동에 참여하거나 생태계에 득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량, 활동, 기여도나 거래 빈도 및 거래량 혹은 지표 전부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MET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메테오라 사용자 및 MET 보유자는 MET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토큰노믹스

- 토큰 생성 이벤트 일자: 2025년 10월 23일
- MET 총발행량: 1,000,000,000개
- 토큰 생성 이벤트 시점 MET 유통량: 480,000,000개(총발행량의 48%)

토큰 분배



[MET 토큰 분배]

토큰 생성 이벤트 시점에 아래 이해관계자에 대한 할당분을 전량 언락¹¹합니다.

- 20%: 메테오라 플랜(Meteora Plan) 및 [게시글](#)에 따라 머큐리얼 파이낸스(Mercurial Finance) 이해관계자에게 15%와 5%로 나누어 할당됩니다.
- 15%: 유동성 공급 촉진 계획을 통해 메테오라 사용자에게 할당됩니다.
- 3%: 런치패드&런치풀 생태계에 할당됩니다.
- 2%: 메테오라의 성장에 기여한 오프체인 기여자에게 할당됩니다.
- 3%: 핵심 유동성 공급자 확보를 목적으로 주피터 스테이킹 참여자에게 할당됩니다(토큰 생성 이벤트 대비 예비분 사용)
- 3%: 중앙화 거래소, 마켓 메이커 등에 할당됩니다(토큰 생성 이벤트 대비 예비분 사용).
- 2%: 밌쓰리쓰리(M3M3) 이해관계자에게 할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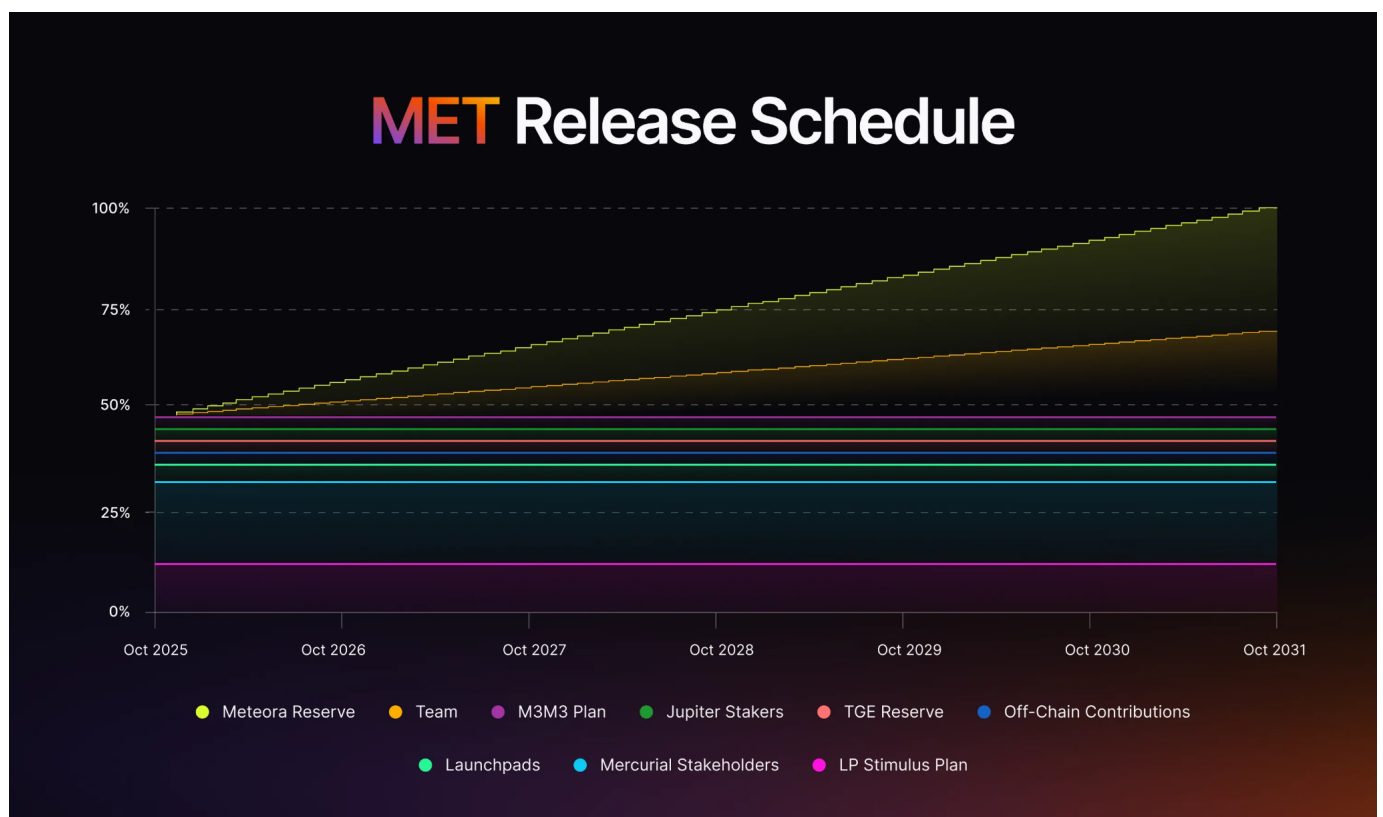
¹¹ Unlock

잔여 52%의 분배 및 유통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 팀에 할당되며, 6년에 걸쳐 선형 베스팅¹²됩니다.
- 34%: 메테오라 생태계 예비분으로 사용되며, 6년에 걸쳐 선형 베스팅됩니다.

MET의 총발행량은 10억 개이며, 추후 토큰 투명성 문서를 통해 정확한 컨트랙트 주소와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토큰 유통



[MET 토큰 유통 일정]

¹² Vesting

토큰 출시 시점에 총발행량 중 48%(대부분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비율/주피터(JUP): 13.5%, 하이퍼리퀴드(HYPE)¹³: 33.4%)를 유통함으로써 가상자산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보아왔던 ‘낮은 유통량/높은 완전희석 시가총액’¹⁴ 패턴을 깨고 지속적이고 과도한 매도 압력에 대한 우려 없이 MET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후 유통량 증가분은 팀 연락 물량(장기간 락업 상태 유지)과 메테오라 생태계 예비분 중 유동성 인센티브에서 비롯될 예정입니다.

유동성 분배 메커니즘

유동성 분배 메커니즘은 사용자가 자신이 할당받을 토큰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에어드랍¹⁵과는 달리 유동성 포지션의 형태로 에어드랍 할당분을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어드랍 수령자는 단순히 토큰을 지급받아 판매하는 대신 에어드랍 할당분을 유동성 포지션 형태로 풀에 공급하여 거래 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메테오라 고유의 기술을 활용하는 유동성 분배 메커니즘은 최대한 많은 이가 메테오라의 기술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토큰 출시 시점의 유통량 48% 중 10%가 에어드랍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유동성 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유통됩니다. 유동성 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메테오라는 팀 물량을 활용하지 않고도 토큰 출시 시점에 유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는 유동성을 공급하여 거래 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¹³ Hyperliquid (HYPE)

¹⁴ Fully diluted valuation (FDV)

¹⁵ Airdrop

로드맵

메테오라는 별도 로드맵을 공지하고 있지 않으나,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사업 현황에 대한 공지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meteora.ag/>
- 블로그 <https://blog.meteora.ag/>
- X(구 트위터) <https://x.com/MeteoraAG>

*상기 링크는 작성일 기준으로 유효한 링크이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